

## 텍시도 상팔자

나의 말년 팔자가 상팔자인가 보다.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11 월 첫째 주말에 교회패밀리센터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교민들에게 감사를, 지역주민에게 봉사를 올리는 봉헌음악회가 열렸다. 6 월달에 합창단원 100 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사님 강권에 못이기는척 우리 부부는 비주얼 단원(?)으로 합창단원에 가입하였다. 솔직히 우리 부부는 성가대나 합창단원이 될 음악실력은 되지 못한다. 음악공부를 별도로 한 것도 아니고 취미도 별로 없다. 나의 음악 경력은 한심하다. 나의 음악교육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다. 고등학교때는 학교 방침이 서울대학교에 몇명 합격시키느냐, 한강이남의 최고 명문고등학교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시간은 그야말로 쉬거나 입시과목을 보충하는 시간이었다. 가끔은 바닷가 바위에 앉아 고래고래 아는 노래를 부른 것 말고는 노래부른 기억이 없다. 아니 고등학교때 짧게 4 개월동안 교회 청년부 성가대에 선 기억은 있다. 그러다가 대학 가서는 자취방에 틀어박혀 가끔은 통기타치면서 어쭙쭙하게 가수홍내 내며 그 시절의 노래들을 부른 기억이 난다. 물론 누구로부터 기타를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다가 군대가서 군가부르고 사회에 나와서는 신입사원시절부터 밤무대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한국의 회사생활은 밤무대 생활과 병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때는 지금의 <노래방>이 없던 시절이었다. 선배가 시키면 아무곳에서나 목파는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했다. 그래봐야 뽕짝이었지만 말이다. 가끔은 직속상관들이 손님접대하는 자리에 끌고가면 시키는대로 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곳에는 노래방시설과 여자들이 있었다. 당시 직속으로 4 단계위인 하늘같은 상무는 특히 나를 끌고 다니는걸 좋아했다. 그 양반은 그런 술집에 가면 나의 노래를 듣기 좋아했는데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었다. 그로부터 밤무대 생활이 20 년이었으니 이번 음악회처럼 술마시지 않고 맨정신에 노래를 부른다는건 손에 꼽을 정도다. 그리고 밤무대 노래는 성악가처럼 곱게 부르면 인기가 없다. 임재범이나 박완규처럼 목소리 탁하고 갈라지는 듯, 애절하고 호소력이 짙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는 폭포수 아래서 득음을 하지 않는다음에야, 술과 담배에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떨어서 불러야 제격이다. 한참 밤무대 목소리가 될 때에는 양주 한병을 옆 테이블 손님으로 부터 선물을 받은 기억들도 몇번 있다. 그러니 목소리가 다 망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도 강산이 두세번 변한 다음에야 성가 합창연습을 한다니 잘 될일이 있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늙은 목소리는 갈라지고, 두성으로 노래부르면 기침이 나고 호흡이 짧아 도저히 합창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다. 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보니까 눈치빠른 몇사람이 벌써 그만 하직을 한 것이 아닌가. ‘아, 이제는 되돌아 갈 수도 없구나.’ 신세를 한탄하며 매일 차안에서 운전하면서 합창곡들을 듣고 불렀다. 4 개월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나도 한심스럽지만 합창단원들도 오십보 백보였다. 이런 실력으로 음악회를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목소리도 안정감이 있고 복식호흡도 그런대로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왔기 시작하는 것이다. 음악은 영혼의 울림이다. 음악은 음표와 음표사이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한다. 어떤 음악이든, 노래부르는 자의 영혼이 그 노래에 없다면 대중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는다. 드디어 발표회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는게 여간 은혜가 되는게 아니었다. 잘하면 좋은 음악회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음악회 전날 생긴 것이다. 우리 부부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남은 인생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기억이 되었다.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막상 음악회가 다가오니 복장이 문제였다. 턱시도와 턱시도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한다. 무슨 내 팔자에 턱시도인가. 내가 할리우드 배우도 아니고, 밤마다 파티에 불려 나갈 연예인도 아니고, 저녁식사에 초대받을 상류층 인사도 아니다. 턱시도를 입어봐야 몇번이나 입을까. 기껏해야 자식 결혼식때 입는다고 해야 두번이다. 그러니 턱시도를 사는 것은 말도 안된다. 턱시도를 빌리는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우기니 아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잊고 있었다. 하기가 나의 대부분의 옷들은 아내가 혼자 쇼핑가서 사들인 것들이니 내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주는대로 먹고 주는대로 입으리라’가 나의 의식주 철학이다. 그런데 리허설 하루 전날 턱시도를 입어보라고 내놓는데 이걸 빌린 것이 아니라 사온 것이 아닌가. 아내의 변명은 몇번 임대하는 가격이나 구매하는

가격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불현듯 지난주에 집에 다녀간 둘째딸이 머리를 스치면서 이건 두 모녀의 작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남편은 분명 반대할터이니 딸을 앞장세워 거사 당일날 공개하면 어찌지 못할거라는 다년간의 노하우인 것이다. 분명 두 모녀가 좀더 저렴하게 살려고 온 천지를 누비고 다녔을 생각을 하니 못이기는 척 입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 조화인가. 맞춤형처럼 꼭 맞을 뿐만 아니라, 여간 멋있는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잘 생긴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래서 옷이 날개라고 하던가. 그래서 아내에게 호통을 치기를 “턱시도 입을 날이 몇번밖에 없으니 최대한 입어서 본전을 뽑아야겠다. 그래서인데 내가 죽으면 수의를 별도로 하지말고 이 턱시도를 입혀서 관에 넣어달라”고 말이다. 하기야 이승의 마지막 모습도 멋있게 보이고 떠나야겠지만, 이승의 마지막 날이 천국의 첫날인데 첫인상을 피죤피죤하게 보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혹시 나를 수행할 천사가 예쁜 미혼 여성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아무튼 나는 아내가 사준 턱시도 입고 천국 갈거다….